

이란의 해커

이번 주말, 이란의 무슬림 해커들이 리바이브 이스라엘 홈페이지를 쳐들어 왔습니다. 공격의 이유가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아의 복음에 대해 가르치는 것 때문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둘 다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사역자들과 장비, 그리고 강의 자료들이 보호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흥미롭게도, 저희 사역자 세 명은 50년대에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이민 온 가정 출신입니다.

마돈나 콘서트

마돈나가 이틀 동안 텔 아비브의 한 경기장에서 저녁 공연을 갖습니다. 마돈나는 카발라 (뉴에이지 신비주의와 전통적 유대교의 혼합)에서 영적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을 쓰며 안식일도 지킨다고 합니다. 저희 공동체 성도들 일부가 Jews for Jesus의 인도로 진행되는 콘서트 현장 전도 사역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구원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청소년 컨퍼런스

이번 주말에 썬칼 할렐과 릭 라이딩스 Rick Ridings의 후원으로 열린, 이스라엘 전국 청소년 컨퍼런스 “엘라브”로 인한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공동체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컨퍼런스 준비에 많은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젊은 메시아닉 성도들이 매년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세르가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예수아의 마지막 계시

신약 성경엔 예수아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서에선, 갈릴리에서 성장하신 뒤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그 분의 십자가와 신성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이해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에선, 예수아께서 모든 영광과 권세로 나타나십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 계 19:11-16.

이번 여름으로 “우드스탁” 페스티벌은 40주년을 맞습니다. 예수아를 우리는 최초의 “히피 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뺨을 돌려 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소유를 내어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사주의 계열의 청소년 컨퍼런스에서는, 예수아를 “히피 족”의 외모 (장발, 희고 긴 겹옷, 샌들 등)와 연결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예수아의 인성에 대한 맞는 묘사이긴 하지만, 분명히 전부는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아와 동행하려면, 우리는 그 분의 두렵고 떨리는 면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 분과 “어우러지고” 싶은 것이라면, 컨퍼런스에서는 “들뜰” 수 있겠지만 매일의 삶 속에선 불안정할 것입니다.

제자도는 예수아의 형상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해변 위 예수아의 형상을 닮을 뿐 아니라, 불로 재림하시는 형상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분과 더불어 겸손히 나귀도 타고, 백마를 타고 정복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컨퍼런스를 열 때 오순절의 불을 원합니다. 제자들이 행 2장에서 받은 불은 계 19장에 예수아의 눈 속에 나타난 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아를 영접할 때, 이러한 불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절반이 아니라, 그 분 전부가요. 갈릴리의 예수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인내와 양선, 겸손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계시록의 예수아께서 우리 안에 계시실 때, 우리는 세상과 육체, 마귀에 대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과 경외의 하나님 간에 완벽한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아의 두 형상을 모두 이해할 때, 은혜와 거룩함이라는 두 가지 성품도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아께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뜻하셨을 때 나타났습니다. 이 은혜가 더 놀라워지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께서 두렵고 떨리는 천군의 지휘관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 분께서는 언제라도 천사 군단을 부르셔서 우리를 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얼마나 기적 보기를 원합니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을 때, 표적과 이사가 임했습니다 (행 2:43; 5:11-12).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아의 “나머지 반쪽”을 봄으로써, 우리는 우리 가운데 기적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충만히 갖게 됩니다.

예수아께서는 율법과 선지서 가운데 세 번, 검을 뽑아 든 여호와의 천사로 나타나십니다. 민 2 장에서는 발람에게, 수 5 장에선 여호수아에게, 대상 21 장에선 다윗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 경우에 모두, 검이 예수아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 19 장에는, 검이 그 분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의 진짜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사도적 권세와 예언적 기름 부으심으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믿는, 젊은 세대가 이러한 말씀을 자신들의 입에 가지고 일어날 것입니다. 권세와 기름 부으심은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아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 계시에 나타나신 그대로의 그 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처럼 검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고통 당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마지막 환란 때에 이 땅에 있지도 않을 것이라는 겁쟁이 교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복자 이상”이 되길 원하십니다. 요한 계시록의 예슈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육신적이고 타협적인 신자에서 세상과 육체, 마귀를 무찌르는 성도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슈아께서는 천군의 총 사령관이시고, 우리는 그 거룩함과 순종을 따르는 그분의 성도 부대가 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